

2025
중2-1
미래엔

2025 중2-1 국어 미래엔 | 4(2) 동백꽃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작품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 작품의 서술자를 바꾸는 경우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시점과 서술자의 특성을 파악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댔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 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싹 짝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먼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먼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어썩어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 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황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다)

웁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싹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뉘이 풀려 기동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찢끔 못 하고 막 굶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여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 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싹을 붙인 것이 펍 후회가 난다.

(라)

거지반 집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

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싹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펍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 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뺄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마)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닭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길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 「동백꽃」

1. 윗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흥미진진하다.
- ② 서술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라보려고 한다.
- ④ 서술자가 작품 속에 부수적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 ⑤ 서술자가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2. (나)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느 집엔 이거 없지?”

㉠ 봄감자가 맛있길래 네 생각이 나서 찜찜 는 말을 하기가 쑥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 만식이에게 감자를 주는 걸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볼까 봐 걱정되어 얼른 먹으라고 재촉했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 만식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 집안 형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 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만식이의 행동에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났다. ㉤ 엄마 몰래 감자를 찜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히 나의 호의를 거절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 | | | |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3. (나)의 서술자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점순이는 만식에게 자기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얼른 먹어 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만식이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일 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몹시 화가 났다. 점순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자, 만식이는 점순이를 돌아다 보았다가 참으로 놀랐다.

- ① 남녀 주인공 모두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남녀 주인공의 처지가 균형 있게 서술된다.
- ③ 사건을 더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 ④ 서술자의 어리숙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었던 재미가 사라지게 된다.
- ⑤ 주인공의 심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져 사건이 독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4. (다)에서 알 수 있는 서술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설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 ② 1인칭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해 준다.
- ③ 3인칭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모두 알고 있다.
- ④ 독자가 알고 있는 것을 서술자만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는 것이 웃음을 유발한다.
- ⑤ 두 명의 서술자가 등장하여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을 균형 있게 알 수 있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었다.

(중략)

⑤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울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큰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⑥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얹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꾸니로 한 번 모질게 후려 빼리고 달아 날지언정.

(중략)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 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 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다)

웁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쏠지 눈살을 찌푸렸다.

㉔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냇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양값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찢끔 못 하고 막 굶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라)

가차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중략)

㉕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쪽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뭘,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㉖“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아무 말 마라?”

“그래!”

- 「동백꽃」

5.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가)~(마)의 서술자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봄·봄」, 「동백꽃」 등 김유정의 소설들은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인물이 놓인 상황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런데 작품 속 ‘나’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게 되면 서술자와 독자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독자들은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더욱 공감하거나 동정하게 된다. 따라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나’와 더 가까워진 독자는 ‘나’라는 인물에 대해 더 큰 웃음을 짓게 된다.

- 송재익(2018), 김유정 소설의 이면 읽기와 소설교육- 해학성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26), pp.138 재구성

- ① 서술자가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무한한 상상을 가능케 한다.
- ②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한다.
- ③ 서술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라보고 있어 사건이 공정한 입장으로 서술된다.
- ④ 서술자가 대상의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대상의 문제점을 비꼬아 비판한다.
- ⑤ 서술자가 이미 독자들은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해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6. (나)의 를 다음 글과 같이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큰소리를 하고는, 점순이는 만식에게 자기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얼른 먹어 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만식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 버렸다. 그러자 점순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만식이는 점순이를 돌아다보고는 두 눈이 크게 둥그러졌다.

- 「동백꽃」

- ① ‘나’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 ② 점순이와 ‘나’의 속마음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③ 점순이의 입장과 처지를 더욱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다.
- ④ 점순이와 ‘나’가 처한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 ⑤ 사건의 전개 양상을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신유형

인물의 특징 및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의 의미, 작품에 대한 감상의 내용의 적절성 판단, 서술상 특징,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상 등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줄거리 및 내용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각각의 특징과 전개에 따른 심리 변화를 파악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러나 한번엔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찼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설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찼다. 그제서는 감때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나)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있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쳐었다.

(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낮이 풀려 기동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찌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찌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찢끔 못 하고 막 굶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라)

그러나 한 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빠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화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마)

거지반 집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룩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 놓을 새 없이 그대로내동댕이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뺨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바)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열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나?”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펑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 「동백꽃」

7. (가)~(라)에 드러난 ‘나’의 심리 변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신기함 → 반가움 → 발끈함 → 조바심
- ② 기대감 → 신뢰감 → 패배감 → 노여움
- ③ 신기함 → 즐거움 → 실망감 → 두려움
- ④ 반가움 → 즐거움 → 상실감 → 기대감
- ⑤ 초조함 → 기대감 → 절망감 → 초연함

8.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닭이 괴롭힘을 당했을 아픔 때문에
- ② 태연한 점순이의 태도에 대한 분노 때문에
- ③ ‘나’의 닭이 다쳤을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 ④ ‘나’의 닭이 닭싸움에서 아쉽게 패배했기 때문에
- ⑤ 겨우 살아난 ‘나’의 닭에게 싸움을 시켰기 때문에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댔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팩하게 생긴 놈)이 덩치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질을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러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툭툭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어썩어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황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다)

거지반 집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씹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 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뺀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라)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폭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 「동백꽃」

9.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점순이가 나를 계속 약올리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 ② ‘나’는 화가 많이 났지만, 점순네 닭에게 화풀이하지 못하는 처지이다.
- ③ ‘나’는 못생긴 우리 수탉보다 실팍하게 생긴 점순네 수탉이 더 마음에 든다.
- ④ ‘나’는 오늘 점순네 수탉과 우리 수탉이 싸우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 ⑤ ‘나’의 수탉은 덩치는 작지만 날쌔 동작으로 매섭게 점순네 수탉을 공격하고 있다.

10. (다)에 등장하는 소재가 지닌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노란 동백꽃: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 ② 지게 막대기: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함.
- ③ 눈물: 점순이에 대한 ‘나’의 짝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나타냄.
- ④ 닭의 헛소리: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이 깊어짐을 청각적으로 표현함.
- ⑤ 호드기 소리: ‘나’를 약올려서 관심을 끌려는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남.

11. (라)를 읽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띠고 있다.
- ② 남녀 주인공의 속마음이 균형 있게 서술되어 사춘기의 풋풋한 사랑이 잘 드러난다.
- ③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를 통해서 1930년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 ④ ‘나’가 닭을 죽인 후 점순이가 이를 비밀로 해주기로 하면서 갈등 해소가 암시된다.
- 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점순이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어수룩한 서술자의 모습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뽕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중략)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껴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나)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채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다)

웁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쏠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불기 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찢끔 못 하고 막 굶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 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펍 후회가 난다.

(라)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텀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뒤통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 「동백꽃」

12. (가)에서 인물의 행동을 통해 성격과 심리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점순이는 계층 간의 차이로 ‘나’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
- ② ㉡: ‘나’는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행동의 원인을 눈치 빠르게 알아챘다.
- ③ ㉢: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다.
- ④ ㉣: 점순이는 ‘나’에 대한 애정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 ⑤ ㉤: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애정 표현에 서툰 성격이다.

13. (나)에서 알 수 있는 1930년대 시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열일곱 살이면 이성 교제가 자유로웠다.
- ② 마름이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관리하였다.
- ③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골의 인심이 각박해졌다.
- ④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이웃의 일에 무관심한 풍조가 생겨났다.
- ⑤ 소작인의 지위가 높아져서 마름이 함부로 소작인을 내쫓지 못하였다.

14. (라)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원도에서 쓰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 ② ‘닭의 죽음’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을 암시한다.
- ③ 두 사람이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는 장면에서 점순이의 심리 변화가 두드러진다.
- ④ 노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풍경 묘사를 통해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⑤ 사춘기 소년이 이성적인 감정을 어렵게 느끼게 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15. 우리말 어휘의 뜻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생이질: 한창 바쁠 때에 모른 척하고 제 할일을 하는 것
- ② 할금할금: 결눈으로 살그머니 계속 할거 보는 모양
- ③ 쟁그럽다: 보거나 만지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흥하거나 끔찍하다
- ④ 불기짱: 무릎과 발목 사이의 뒤쪽 근육 부분
- ⑤ 알싸하다: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따스함이 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지반 집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싹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펍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 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뺄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차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 격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 「동백꽃」

16. <보기>를 참고하여 ㉠을 들은 후에 ‘나’의 생각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마름은 지주로부터 소작지(땅)의 관리를 대신하는 일종의 관리인이다. 마름은 소작농들로부터 땅을 빌린 값으로 곡식을 거둬들이고 소작농을 평가해 지주에게 알리는 등 소작농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였다. 이 작품의 점순이는 마름의 딸인 반면,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계층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작품 속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 ① ‘나’는 지주의 횡포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되겠군.
- ② ‘나’의 가장 큰 걱정은 점순이네 집에 닭값을 물어 줘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③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말았다는 죄책감을 느끼겠군.
- ④ ‘나’는 소작농으로서 마름에게 대항하고 싶다는 반항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군.
- ⑤ ‘나’는 우리 집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마름의 딸인 점순이에게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겠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옆에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중략)

“너 일하기 좋니?” /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

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끼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어썩어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중략)

눈물을 흘리고 간 그담 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저의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도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서 놓고는 /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썩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중략)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 ㉢“뭘,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

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뒤편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 「동백꽃」

17. ‘감자’에 담긴 점순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가난한 ‘나’를 도와주는 배려의 소재이다.
- ③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소재이다.
- ④ 계급 차이로 인한 우월감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 ⑤ 농사를 짓고 남은 음식으로 별 뜻이 없는 소재이다.

18.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어 현실감과 생동감이 느껴져.
- ② 서술자인 ‘나’가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
- ③ 일제강점기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 ④ 닭을 괴롭히는 모습에서 점순이의 심술궂은 성격을 알 수 있어.
- 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임을 알 수 있어.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는 자존심이 상해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하였다.
- ② ㉠: 점순이는 닭을 괴롭히며 ‘나’에 대해 복수를 하였다.
- ③ ㉡: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나’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 ④ ㉡: 점순이의 의도를 이해하고 점순이에게 잘 보이려는 ‘나’의 의도가 드러난다.
- ⑤ ㉡: 갈등이 해소되며 ‘나’와 점순이의 순수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중략)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냈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쏙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㉞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 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중략)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채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 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다)

웁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쏘니 눈살을 찌푸렸다.

㉟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뉘이 풀려 기동갈

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찢끔 못 하고 막 굶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라)

가차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중략)

㊱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폭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㊲“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통이도 겹쳐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 ①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
- ②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 ③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사건을 본인의 관점에서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부수적으로 등장해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2. 정답 ④

(나)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꿀 경우, 점순이는 만식이의 마음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식이의 속마음을 서술한 ㉠이다.

- ①, ②, ③, ⑤ 모두 점순이의 속마음에 해당하는 서술이다.

3. 정답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뀔 경우, 주인공의 심리를 더 잘 알게 되어 사건이 독자의 예상대로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뀔 경우, 남녀 주인공 모두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뀔 경우, 남녀 주인공의 처지가 균형 있게 서술될 수 있다.
-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뀔 경우, 사건을 더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뀔 경우, 서술자의 어리숙한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재미가 사라질 수 있다.

4. 정답 ④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독자는 알고 있지만 주인공인 서술자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응하는 것이 웃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소설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한다.
- ②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해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모두 알 수는 없다.
- ⑤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두 명의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을 균형 있게 알 수 없다.

5. 정답 ⑤

제시된 글에 따르면 작품 속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게 되면 서술자와 독자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독자들은 바보 같은 '나'와 더 가까워지며 '나'라는 인물에 대해 더 큰 웃음을 짓게 된다. 이를 참고했을 때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미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서술자가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해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볼 수 있다.

- ① 제시된 글에서는 서술자가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독자의 상상력을 넓혀 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제시된 글에서도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긴장감을 야기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제시된 글에서도 서술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대상의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통해 대상의 문제점을 비꼬아 비판하고 있지 않다.

6. [정답]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꿀 경우, 독자가 사건의 전개 양상을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꿀 경우, 독자가 '나'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끼기 어렵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꿀 경우, 점순이와 '나'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되지만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꿀 경우, 독자가 점순이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더욱 깊이 있게 헤아리기는 어렵다.
- ④ 점순이와 '나'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관찰자 시점으로 바꿀 경우에 해당한다.

7. [정답] ③

(가)에서 '나'는 '나'의 집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난 후 이전과 달리 점순이네 집 수탉에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자 신기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에서 '나'의 집 수탉이 이기는 모습을 보자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다)에서 점순이네 닭에게 공격당하는 '나'의 집 수탉을 보며 실망감을 느끼고, (라)에서 아버지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한다. 따라서 '나'의 심리 변화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②, ④, ⑤ '나'의 심리 변화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④

'나'의 닭이 닭싸움에서 아쉽게 진 것 때문에 '나'가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다.

- ①, ②, ③, ⑤ '나'가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펍 쏟아'진 이유는 거의 죽다 살아난 '나'의 닭을 또 꺼내서 닭싸움을 시켜 놓고는 천연덕스럽게 호드기를 불고 있는 점순이를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기 때문이다.

9. [정답] ②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①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가 점순네 수탉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를 통해 '나'가 닭싸움을 처음으로 목격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를 통해 점순네 수탉에게 '나'의 수탉이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⑤

'호드기 소리'는 '나'를 약올려 관심을 끌기 위해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① '노란 동백꽃'은 여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소재로 볼 수 없다.

② '지게 막대기'가 '나'와 점순이의 갈등 해소를 암시하지는 않는다.

③ '나'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거의 죽다 살아난 '나'의 닭을 또 꺼내서 닭싸움을 시켜 놓고는 천연덕스럽게 호드기를 불고 있는 점순이를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기 때문이다.

④ '닭의 헛소리'가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11. [정답] ②

(라)에는 '나'의 속마음만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라)는 인물들이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③ (라)는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1930년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라)는 '나'가 닭을 죽이고 점순이가 이를 비밀로 해 주겠다고 하면서 갈등 해소가 암시되고 있다.

⑤ (라)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점순이의 말대로 하겠다는 '나'의 모습을 통해 웃음이 유발된다.

12. [정답] ③

㉮의 ‘굵은 감자 세 개’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적극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 ① ㉮은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은 평소와는 다른 점순이의 행동의 원인을 눈치 채지 못한 모습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에서 자기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얼른 먹어 버리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은 애정 표현에 서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무뚝뚝한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②

(나)의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등을 통해 1930년대에 마름이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나)에서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시골의 인심이 각박해졌는지는 (나)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이웃의 일에 무관심한 풍조가 생겨났는지는 (나)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나)에서 소작인의 아들인 ‘나’가 마름인 점순이네에게 ‘굶질거린다’고 했으므로 마름이 함부로 소작인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등을 통해 사춘기 소년이 이성적인 감정을 어렵듯이 느끼게 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라)에서는 비속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나’가 닭을 죽인 것을 점순이가 비밀로 해 주면서 갈등 해소가 암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두 사람이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는 장면에서 점순이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노란 동백꽃이 피어 있는 풍경 묘사를 통해 늦가

을의 정취를 느끼기 어렵다.

15. [정답] ②

‘할금할금’은 ‘결눈으로 살그머니 계속 할겨 보는 모양.’을 말한다.

- ① ‘생이질’은 ‘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을 말한다.
- ③ ‘쟁그럽다’는 ‘하는 행동이 괴상하여 알밋다.’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고소하다’의 뜻이다.
- ④ ‘불기찍’은 ‘불기’를 낚잡아 이르는 말.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의 양쪽으로 살이 불룩한 부분을 말한다.
- ⑤ ‘알싸하다’는 ‘매운맛이나 독한 냄새 따위로 코속이나 혀끝이 알알하다.’의 의미이다.

16. [정답] ⑤

<보기>를 참고했을 때 ‘나’는 ㉮를 들은 후 마름의 딸인 점순이에게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 ① <보기>를 참고했을 때, ‘나’가 ㉮를 들은 후 지주의 횡포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보기>를 참고했을 때, ‘나’가 ㉮를 들은 후 점순이네 집에 닭값을 물어 줘야 함을 걱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보기>를 참고했을 때, ‘나’가 ㉮를 들은 후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보기>를 참고했을 때, ‘나’가 ㉮를 들은 후 마름에게 대항하고 싶다는 반항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17. [정답] ③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 표현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 ① 점순이는 ‘나’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감자를 준 것이 아니다.
- ② 점순이는 가난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 감자를 준 것이 아니다.
- ④ 점순이는 계급 차이를 ‘나’에게 보여 주기 위해 감자를 준 것이 아니다.
- ⑤ 점순이는 ‘나’에게 농사를 짓고 남은 음식으로